



국립공원 매표소가 시집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숲길에서 만나는 한 편의 시

북한산을 오르던 이들이 매표소를 지나며 고개를 갠웃거리다. 매표소에 '시인마을'이라는 문패가 달렸기 때문이다. 몇몇 이들은 무언가 바뀐 것 같은 매표소 안을 기웃거리려 보기도 한다. 매표소 내부에 자리한 것은 다름 아닌 시집이 진열된 서가. 의외라는 생각에 머뭇머뭇 '시인마을'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 '탐방 안내'라는 명패를 단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한다.

"이 곳에 비치된 시집을 가져가서 산을 오르면서 볼 수 있습니다. 시집은 하산하면서 이곳이나 다른 탐방로의 시인마을에 반납하면 됩니다."

연락처를 기입한다든가 하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서가에 진열된 여러 종류의 시집 중 맘에 드는 것을 골라 들고 산을 오르면서 볼 수 있다는 말에 일단 반갑다. 《자연 속에서 읽는 한 편의 시》라는 제목을 가진 시집에는 고은, 도종환, 김지하, 신경림처럼 얼핏 들어도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시인들의 시가 실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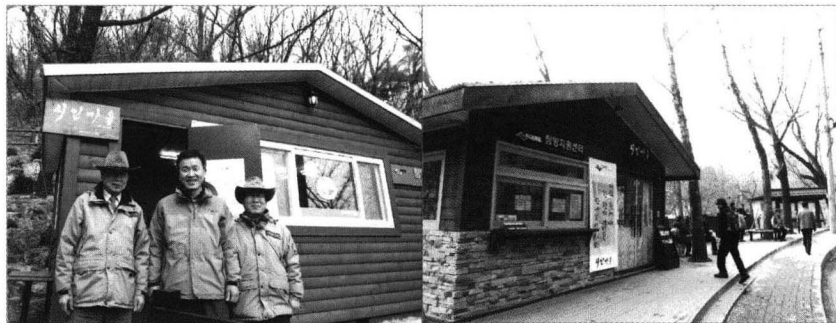
있어 읽기에 부담도 없다. '시인마을'에 들렀던 등산객들은 너도 나도 시집을 한 권씩 들고 산을 오른다.

문화공간으로 거듭난 국립공원 매표소

국립공원 매표소가 시집 가득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났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기존의 매표소는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전국의 국립공원 매표소 69곳에 '시인마을'이라는 문패를 달고 시집을 배치해 탐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바꾸었다.

'시인마을'의 서가에는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세상을 노래한 우리 시인들의 시 약 500여 편이 모두 10종의 시집으로 만들어져 비치될 계획이다. 현재 당초 계획된 10종 가운데 현대시를 중심으로 일단 5종의 시집이 선보였는데 나머

좌) 우이 시인마을의 유경호 분소장(가운데)은 계절이 바뀌면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우) 도봉 시인마을은 벌써부터 많은 등산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 5종은 오는 2월 중으로 추가로 제작된다. 《자연 속에서 읽는 한 편의 시》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시집에는 고은, 김지하, 신경림, 김용택 시인의 시처럼 한국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들이 실려 있다. 탐방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시집을 골라 본 후 국립공원을 나올 때 가까운 '시인마을'에 반납하면 된다. 시집에 실린 시는 도종환, 안도현 시인과 박수현 문학평론가의 자문을 받아 민족문학작가회의 시분과위원회가 선정했고, '시인마을'이라는 현판은 김지하 시인이 직접 썼다.

새해 첫날인 지난 1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 박화강 이사장, 신경림 시인 등은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우이 시인마을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이사장은 “국립공원이 좀 더 친숙하게 탐방객들에게 다가서고 시민들의 정서 함양의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인마을'을 구상했다”며 “바람소리, 들꽃향기, 솔내음이 나는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 한 편을 만나는 즐거움을 체험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인마을'을 기획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김종희 홍보팀장은 특히 '시집'을 비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 속에서 가볍게 쉬면서 접하기에 수필이나 소설보다는 시가 가장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딱딱한 매표소의 분위기를 탈바꿈하고,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민족작가회의 측에 '너무 어렵지 않으면서 자연을 노래한 시'로 선정해 달라고 의

뢰했다.”

반가운 시집과 함께하는 등산길

일단 '시인마을'의 등장을 가장 반기는 이들은 뭐니 뭐니 해도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이다. 사실 매표소는 등산객들에게 그리 반가운 존재가 아니었다. 산의 길을 가로막고 위압적으로 요금을 징수하던 곳이 시가 흐르는 공간으로 바뀐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특별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다.

도봉 시인마을에서 고은 시인의 시선집을 골라든 등산객이 석주 씨는 “시인마을이라는 문패를 보고 너무 예뻐서 들어와 봤는데, 반가운 시집이 가득해 너무 즐겁다”며 “평소 산을 오르다가 쉬 때 무료하기도 했는데, 이제부터는 시집을 빌려갈 수 있다니 더욱 보람 있는 산행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우이 시인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북한산 우이분소 유경호 분소장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다”면서 “하지만 시행 초기이고, 겨울이라는 계절상의 여건 때문에 아직 활발한 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좀 따뜻해지는 봄이 되고, 앉아서 책을 읽기 좋은 계절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이주연**

취재 | 이주연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